



안류

1996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를 표현하기 위해 중국 언론이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말은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일본 및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 ①한류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②한류 열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2004년 NHK에서 ‘겨울연가’가 방영된 것을 기점으로 ‘한류 붐’이 일어났다. ‘겨울연가’는 그 이후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50·60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겨울연가’는 잃어버렸던 쇼와 시대의 정서를 되찾게 해 준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고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주목을 끌었다. 사실 한류 붐이 일기 전까지 일본에서 한국의 입지는 매우 미약했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고 여기에 도화선이 된 것이 ‘겨울연가’였다. 그 전에는 ‘야키니쿠와 김치’로 밖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 준 것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가요였다.

이와 더불어 김치, 고추장, 라면, 화장품 등 한국 관련 제품의 선호 현상까지 나타났다. 또한 대중문화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의 가수, 영화 배우, 탤런트, 나아가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애정을 느껴 한국어를 익히려는 사람들까지 증가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 2005년에는 전년 대비 35.5%나 증가한 244만 3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

2004년 ‘한류’로 시작된 작은 ‘붐(boom)’은 이제 하나의 문화 장르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특정 드라마와 특정 배우에 집중되었던 관심은 한국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한국과 일본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 가고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은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좁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한류(韓流)’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작은 물결을 만들어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서 더욱 가까운 나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어휘

항목	項目
계기	きっかけ
무척	非常に、大変、とても
매듭	韓国伝統の糸や紐などの結び
선풍적	旋風的
열풍이 일다	ブームが生ずる、ブームが起こる。ブームになる
역수입	逆輸入
방영되다	放映される
기점	起点
파장<波長>	衝撃的なことの影響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 크다.
불러일으키다	呼び起こす
되찾다	取り戻す
입지가 미약하다	立場や力が弱い。「미약하다」は「微弱だ」
싹트다	芽生える
도화선	導火線
수용	受容
차원	次元
익히다	身につける、慣らす
집중되다<集中->	集められる、集まる
좁혀 가다	縮めて行く。「좁히다(狭める、縮める)」+「-아/어 가다(～て行く)」
물결	波
네 끼	四食。「-끼」は食事の回数
타다	(賞、給与などを) もらう、受ける

<전통 매듭>

